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취재 정보 자료

1. 선수 프로필

	종 목	사격	세부 종목	25M권총	
	성 명	봉서린		(영문 : bong seorin) (한문: 奉序璘)	
	소 속	광주시체육회			
	출생년도	1993.10.15		성별	여
	출생사도	광주광역시			
	학력	중학교		동아여중학교	
		고등학교		동아여고등학교	
대학교		남부대학교			

2. 국제대회 참가성적 및 세계랭킹

국제대회 참가성적 (2022-2026년)	• 2026 ISSF 뮌헨 월드컵 사격대회 개인12위 • 2026 ISSF 항저우 월드컵 사격대회 개인18위
세계랭킹(제출일 기준)	• 73위

3. 스토리텔링 자료

1.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목표와 출전 각오는 무엇인가요?
이번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제 선수인생에 더 성장하는 무대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결과로 증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집중력을 가지고 "한계가 없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2. 해당 종목의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시작 연령은?
시작은 중학교 3학년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방과후 수업때 조금에 흥미는 가지고 있었고, 같은반 친구가 사격부에 같이 가입해보자는 말에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3. 경기 전 나만의 루틴 또는 징크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경기가 있는날에는 일찍 일어나 몸을 깨우고 ,아침식사를 꼭 챙겨 먹습니다. 아침식사는 된장찌개 밥을 든든하게 먹는걸 좋아하고, 안되면 계란과 우유를 먹습니다. 징크스는 없습니다.
4. 선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임신을하고 탄 금메달이 가장 기억에 남아 있던거 같아요 2023 한화회장배 경기 였는데 임신중이라 컨디션도 별로 였지만 그래도 나와 동글이가 함께하는 경기는 두번다시 경험하지 못하기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총쏘는도중에 동글이가 꿈틀대면 배를 쓰담으면서 어루고 달래면서 쏘던거 같아요!

5.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방법 무엇인가요?
힘들 때 가 출산 후 조금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운동과 육아에 선택을 하려고 했던 시기 같아요 가족, 지인, 동료, 친구들이 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챙겨줬기에 다시 일어서서 사격장에 나와 운동하는 즐거움을 알고 온 가족이 육아에 많이 참여해주셨기에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육아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 선수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가족, 지도자, 멘토 등) 그 이유는?
저는 대학교감독님 "김순희 감독님"이 제 우상입니다 대학교를 입학 하기 전 저는 보석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라고 할까요? 보석이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모습이였죠 하지만 대학교 입학 후 감독님께서 칭찬과 부족한 점을 지적해주시면서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주신덕에 이자리에 설수있는거 같아요 감독님은 조금 부족한 선수들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지도자의 길에 걷게 되면 꼭 감독님과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7. 운동 외에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운동 골프 좋아합니다! 공을 치면서 스트레스를 멀리 날리는거 같아요
8.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부상 극복, 학업·직장 병행, 가족 이야기, 국가대표 선발 과정 등)
특별한 이야기는 인터뷰때 생각나면하겠습니다.
9.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잠깐 스쳐가는 선수도 기억되기보다 꾸준히 대중들께 "사격하면 봉서린선수"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욕심내면 "사격여신 봉서린" 면이면 좋겠습니다.
10. 나만의 좌우명 또는 철학이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결국 해낸다.
11.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지인이 있나요?
라이벌 없습니다. 저는 제자신과 싸우는걸 좋아합니다. 한계를 뛰어 넘어갔을때 터지는 도파민을 즐기는걸 좋아합니다.
12.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작성해 주세요.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응원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